

# 서옹 석호의 참사람의 윤리적 의미

- ‘덕’ 윤리와 비교를 통해서 -

김종용\*

• 목 차 •

I. 머리말

II. 서옹의 ‘참사람’의 특징과 ‘덕’ 윤리의 특징

1. 서옹의 참사람의 특징

2. ‘덕’ 윤리의 특징

III. 서옹 사상과 ‘덕’ 윤리의 윤리적 방법론과 논리

IV. 맺음말

---

\*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수료.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287-312.

## 한글요약

본 연구는 서옹의 참사람과 현대 ‘덕’ 윤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옹 사상의 윤리적 특징과 현대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 논문이다.

현대 ‘덕’ 윤리는 근대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에서 촉발되었고 서옹 또한 서양의 문명[과학주의·이성주의]적 사고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철학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두 사상 모두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의 윤리성을 비판한다. 또한 두 사상 모두 인간의 윤리성을 증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품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각 개인이 훌륭한 성품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도덕적 ‘ 좋음(good)’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을 말한 것이다. 즉 ‘행위자’중심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두 사상 모두 모든 인간은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스스로 좋음을 판단하는 도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윤리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후덕자’가 되기 위한 방법론은 상이했다. 서옹의 방법론인 참선은 자신의 모든 의식과 사고를 여의고 오직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선정[定]에 들어감에 즉 하여 밝혀지는 지혜[慧]로써 모든 세상 만물이 본디 하나임을 깨닫고[自他不二] 이에 한다는 생각 없이[無爲] 동체자비(同體慈悲)·자리아타(自利利他)가 행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덕’ 윤리에서 말하는 성품의 밝힘은 ‘습관’에 의해 체화(體化)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에 기반을 둔 ‘숙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실천적 지혜는 사회적 경험을 쌓음으로 인해 증진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옹의 참선 수행 목적은 본디 공적한 자성을 깨닫는 것이고 이에 즉하여 드러나는 지혜로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에 기반을 둔 행위 즉, 동체자비·자리아타와 같은 자비행은 수행을 통한 지혜에 기반하여 실현되는 것이었다. 반면 ‘덕’ 윤리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된 실천적 지혜를 기반으로 숙고하여 중용에 맞게 행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품을 확인하고 체화하는 것이었다. 두 사상의 기본적 사상, 즉 인간의 윤리적 가능태를 인간의 성품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법론과 논리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옹의 윤리 사상은 각 개인이 성품을 닦음으로 스스로 지혜를 밝히고, 이로 말미암아 각자가 도덕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하는 ‘행위자’ 중심 윤리의 특징이 발견된다. 이는 현대 윤리학을 주도하고 있는 ‘덕’ 윤리의 이론과 합치하는 부분이였다. 다만 각 개인이 성품을 닦는 수행 또는 자기 수련의 과정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 주제어

서옹 석호(西翁石虎), 참사람, 선(禪), 불교 윤리,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

## I. 머리말

본 연구는 서옹의 참사람과 현대 ‘덕’윤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옹 사상의 윤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옹 석호(西翁石虎, 1912~2003) 대종사는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서옹의 사상은 ‘참사람’으로 대표된다. 서옹의 참사람은 임제 의현(臨濟義玄, ?~867)의 ‘무위진인(無位眞人)’<sup>1)</sup>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서옹은 참사람의 중요성을 1970년대부터 주장하였다. 이후 서옹은 많은 담화와 기고문에서 ‘참사람’이라는 개념을 꾸준히 강조하였으며 1995년 초겨울에는 「참사람 결사문」과 「참사람 서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2)</sup> 서옹의 참사람 사상은 선수행을 통해 완성되며 이러한 선수행으로 말미암는 참사람은 개인의 이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이를 행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서옹은 현대 과학 문명과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의 근대 서구식 철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내적 수행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풍토를 비판하였다. 이에 서옹은 본디 청정한 자성을 회복 또는 깨닫기 위한 내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서옹의 사상은 많은 부분에서 현대 ‘덕’ 윤리와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 ‘덕’ 윤리 또한 덕을 함양하기 위해 자기 수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덕 함양은 개인의 행복과 이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타행이 실현되었을 때 완성된다고 보았다. 결정적으로 ‘덕’ 윤리 또한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를 완성하기 위해서

1) 참나[眞我]는 절대 이율배반을 탈피한 자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 진실재(眞實在)인 참나, 진실재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 한다. 임제 스님이 말한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다. 서옹, 『임제록연의』, 임제선원, 1974, p.30.

2) 오종만, 「결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정혜결사와 참사람결사 비교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p.186 참조.

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성품에서 윤리적 해답을 찾고 있다는 점은 그 유사성이 상당히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사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용 사상에 숨어 있는 윤리적 함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자.

## II. 서용의 ‘참사람’의 특징과 ‘덕’ 윤리의 특징

### 1. 서용의 참사람의 특징

서용은 현대 문명이 지금의 기초대로 큰 반성 없이 진행되고 발전된다면 인류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았다.<sup>3)</sup> 서용이 여기서 말하는 현대 문명이란 근대 서구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적 이성주의 사고이다. 이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이하에서 살펴보자.

서용은 “서양철학의 본래 전통이라고 하면 이성주의적 철학이며, 거짓이다. 착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서양철학의 전통”<sup>4)</sup> 이라고 말하면서 서양철학은 이성에 기반을 둔 분별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주의적 관념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19세기에 들어 ‘이성’이 몸 또는 물질을 지배한다는 사고에서 ‘욕망’이 몸과 물질을 지배한다는 사고로 전환되면서 욕망의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sup>5)</sup> 이에 서용은 현시대는 욕망의 시대라 말하고,<sup>6)</sup> 현대인들은 욕망의

3) 서용, 『선과 실존철학 참사람의 향기』, 백양사, 2004, p.48.

4)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19.

5)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0.

6) 서용이 말하기를 “과학 문명은 서양문명이라고 여기는데, 세계로 퍼져나간 과학 문명은 욕망에 기인한 그 근본 바탕 때문에 오늘날 우려하고 있는 인

꼭두각시가 되어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말한다. 내적 자기성찰과 반성에 의한 자기 고양(高揚)이 자신의 기쁨이자 행복이 아닌 단순 욕망 충족의 척도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대 사회는 행복하기 위해 욕망을 쫓는 사회라는 것이다.

서용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익히 알아차린 현대 서양 철학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대안 또한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서용은 하이데거(Heidegger, 1889-1976)를 말하면서 서양의 철학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감에 따라 욕망 철학에서 실존철학(existentialism, 實存主義)으로 변모하였고 이는 곧 기존의 이원론적 관점을 탈피하는 과정으로 서용은 평가한다. 또한 서용은 실존철학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런데 이런 것도<sup>7)</sup> 선(禪)에서는 참선하는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참선이라는 것은 생사의 절대 모순에 빠져 한 덩이가 되어 의심해 들어가서 결국에는 무의식 상태가 돼서 의식이 끊어져 이것을 초월하여 생사가 없는 자기 참모습에서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참으로 인간의 올바른 실존에서, 구경(究竟)의 실존에서 자유자재하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원의 생명체를 해결하는 것이 선(禪)이다.”<sup>8)</sup>라고 말하면서 실존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시에 선수행에 대한 우수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말하기를 “하이데거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선(禪)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유자재하게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원리 바탕이 되는 것이다.”<sup>9)</sup>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실존철학이라고 하는 것인 실존에 대한 자각, 놀라움,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치기 때문에

---

간성 상실의 문제로까지 비약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서용, 「대중법문」, 『시와세계』 제5집, 시와세계, 2004, p.203.

7)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도”라는 말은 실존에 대한 자각을 말한다.

8)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0.

9)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0.

지혜로써 타인과 만물을 대함에 자유자재하지 못하니 새로운 역사를 쓸 그 주체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서용이 위와 같이 인간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본디 불성의 지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지혜라는 것은 이성, 의식, 앎을알이, 지식과는 다른 절대적 지혜이다. 이에 서용이 말하기를 “우리는 앎을알이로, 의식으로 팔만대장경을 자꾸 읽고 연구하니 우리가 자유를 못 얻고, 오히려 팔만대장경의 노예가 되어 올바른 불법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 앎을알이를 초월해서, 그 의식을 초월해서 자기 참모습 자리에서 팔만대장경을 보면 그것은 쉽게 말하는 교가 아니라 교외 별전에 대한 교내가 아니라 그것이 선지다. 조사의 종지다.”<sup>10)</sup>라고 한 것이다. 서용은 이성과 앎을알이를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을 때야말로 인간의 참모습이 드러나며 그러한 참사람은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대우주의 주인이 되는 자라고 말한다.

자기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밖에 참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자기가 진실하게 사는 거기에 참선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 자기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 자기 마음, 사람 마음, 근본 마음 그 자리가 부처지 따로 성불이 없다. 그러므로 그 마음자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누구든지 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허공과 같이 하나이다. 모든 사람과 자연 그리고 대우주가 모두 하나이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은 횡으로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주 깊이 있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돼버리니깐 대자대비한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고 우주가 하나라는 바탕에서 서로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서로 자비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살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10)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1.

11)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2.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 할 것도 없고 세상 만물에 ‘나’ 아님 또한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본디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사람의 참사랑은 횡적 넓이의 평등이며 종적 깊이의 평등이다. 종과 횡으로 평등하여 무연자비(無緣慈悲)라 한다. 이것은 애견(愛見)의 자비가 아니라 큰 지혜[大智]를 근거로 하는 절대 평등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비는 대안심(大安心)의 경지이니 절대 근원적 인간의 주체이다. 참사람은 절대적 주체로서 본래 자비의 주체이며 지금 현재의 주체이다. 따라서 참사람은 자비를 동기로 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참모습은 본래 참사람이니 모든 인간이 자비로 행위 할 때 이 지구 그리고 우주 전체는 자비의 그물로 포용한 세계가 되는 것이다.<sup>12)</sup>

이에 서용은 모든 독자성[多]은 본디 같은 보편성[一]으로 귀결되는데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일(一)’, 즉 자신의 성품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sup>13)</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양철학은 욕망의 철학이며 ‘나’와 ‘남’ 그리고 만물을 나누어 생각하는 대립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로는 결코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 서용의 중지이고 결론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자타를 나누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이치를 깨달아 동체자비(同體慈悲) 그리고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12) 미산 외 4명, 「진정한 자비의 실천과 선불교 자비행법의 모색」,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운주사, 2015, pp.174-175.

13) “민주사회는 일면 인간 본위의 도덕적 가치가 존중되면서도 다양성 속에 무책임한 자기 발산과 나 하나만의 이기적인 사고, 나 하나만의 방종한 자유의 주장으로 내적 갈등과 분열을 보이기도 한다. 평화와 자유의 실현은 인간의 본질적인 이상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우리 불교의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원융정신에 입각한 불편불의(不偏不倚)한 대동적(大同的) 사상이라야 한다.”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32.



러한 삶을 사는 이를 서용은 ‘참사람’이라고 하였다.<sup>14)</sup>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참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크게 깨달아 모두가 본래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함께 번영하는 동체자비심(同體慈悲心)을 행하여 진실하고 평화스러운 불국정토 건설을 이룩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교 진리의 꽃은 ‘우주적인 참사람’인 것이다.<sup>15)</sup>

즉, 참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부처의 마음과 같이 만물에 대한 자비심을 내어 인연이 닿는 모든 중생에게 손을 내밀어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서용이 참사람 운동을 제창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 고불총림 백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참사람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참사람이라는 뜻은 인간은 첫째 감각이 있고, 감각을 지배하는 이성이 있고, 이성보다 더 깊은 자리에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강조되는 휴머니즘 인간주의 즉, 이성을 지배하는 영성 자리에 살자는 것이 참사람 운동입니다. 서구 유럽 르네상스 이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었고, 게다가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삶은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과학 문명의 노예가 되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하는 자기반성을 통해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sup>16)</sup>

14) 서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된 사람의 동체대비를 실현하여 남을 이롭게 할 때 자기도 이롭다는 자리아타 사상을 모든 생활에서 실천하자 ‘참나’는 이웃과 일체이며, 국가사회와 일체이며 전 인류와 일체이다. 우리 모두 각자가 본래로 참사람인 줄 믿고 참사람답게 행동하여 온누리의 청정을 이룩해야겠다.”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32.

15)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42.

따라서 우리는 서양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이성주의 그리고 과학주의와 같은 외면에 집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늘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던지면서 참사람이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을 돌봄으로써 아집(我執)과 갈애(渴愛)를 버리고 분별심을 여의어서 늘 자비심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모든 힘은 이 참사람의 자비심에서 발휘될 때만이 서로 존중하는 총화가 이룩되며 인간다운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거짓 나를 버리자. 본래의 ‘참나’를 깨달아 일체의 자기 욕망 본위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와서 불국토가 이룩되기 위해 노력하자.<sup>17)</sup>

‘참사람이 되어 서로 배풀고 사랑하는 사회를 이룩하자’고 그는 현대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용 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9년이 되었지만, 위와 같은 법문은 오히려 지금의 2022년 우리 현실에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빈부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과 같은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이는 위에서 서용이 말했듯이 서로 분별하고 대립하는 무명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서용이 살았던

16) 서용, 「대담」, 『시와세계』 제5집, 시와세계, 2004, p.201.

17)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45.

18)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념 갈등, 정당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갈등 등이 모두 세계 1위라고 말하였다. 특히 불평등 조사기관으로 세계에서 권위 있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의 불평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월드 이니퀄리티 리포트(World inequality report)에서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누리 "나이·성별·진영 갈갈이..한국 갈등 세계 1위 됐다"」, 『노컷뉴스』, 2022.03.15.

시대보다 더 외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서용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 ‘덕’ 윤리의 특징

현대 ‘덕=탁월성(arete)’ 윤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덕’ 윤리가 다시금 현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특정 사상이 어떠한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태동되었는지를 이해했을 때 그 사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 근대 사상의 회의(懷疑)는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촉발되었다. 이는 서양 근대 역사를 줄곧 지배해온 합리론적 이성주의의 전통에 대한 반동이었다. 이때 많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사조(思潮)들이 등장하였고, 윤리학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탈근대적 윤리관을 모색하였다. 하이데거(Heidegger, 1889~1976)와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윤리적 방향성을 찾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도달한 인간 존재는 ‘실존(existence, 實存)’이라는 어휘로 함축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존이란 본질에 대립하는 개체적 존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현실적 존재 또는 주체적, 자각적 생존을 실존으로 하여 본질에 앞서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윤리적 판단에 있어 주관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탈근대적 철학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 물음은 ‘어떻게 그토록 비윤리적인 행위에 사람들이 동참하였는가’였다. 이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악의 평범성’을 말하면서, 보통의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누구나 악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말하였다.<sup>19)</sup> 이는 곧

각 개인은 단독적인 인간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 하며, 그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실존주의의 정점에 있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인간은 철저히 '자유 의지를 선고받은 존재'로<sup>20)</sup>, 그 자율성이 무겁고 때로는 고달프기까지 하다고 말한다.<sup>21)</sup> 이에 사르트르는 각 개인이 '자기기만'에 빠지지 말 것과 즉자(卽自)가 아닌 대자(對自)로서 사유하고 행위 할 것을 권유한다.<sup>22)</sup>

위에서 개괄한 것처럼 서양 근대에서 현대로의 전환은 인간의 자유 의지의 극대화화 그에 따른 개인의 도덕적 주관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책임을 매우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도덕적 주관성이 강조되면서 그러한 개인은 '어떠한 기준으로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뒤따랐다.

이에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1929~ )를 필두로 '덕(德)'이 제시되었고,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 )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공리주의

19) 고은강은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아이히만은 죄를 지었다. 무사유(無思惟)가 아이히만의 죄목이다. 스스로의 상상력을 박탈한 죄, 다시 말해서 생각하지 않은 죄가 아이히만을 악으로 이끌었다. ... 특별한 악의도 없고 악을 저질러야 하는 외적 압력도 없는데,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사회가 규범으로서 승인한 도(道), 즉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그 삶의 방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결과가 악의 덕을 쌓은 셈이 되었다." 고은강,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는 동아시아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p.193.

20) 인간이 선고받은 자유는 거부할 수 없는 '자유 의 부조리'이다.

21) 이성환, 「사르트르의 <행위>의 존재론」, 『철학연구』 제115집, 대한철학회, 2010, pp.193-194 참조.

22) 논자가 근대 윤리에서 현대 윤리로의 전환을 말함에 있어 실존철학 또는 실존주의에 주목하는 것은 실존철학 이후 개별적 도덕성[보편성→주관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현대 윤리학의 전제에 그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김현숙, 「사르트르의 자유」, 『우리는 생각한다』 제3집,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학생회 홍보부, 1981, pp.82-84 참조.

적 윤리관과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의무론, 즉 근대적인 윤리관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표하면서,<sup>23)</sup> 윤리적 판단의 최선으로서 ‘덕(德)’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덕’ 윤리는 고대 서양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에 의거한 것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덕’ 윤리의 이론과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어 있다. 이러한 ‘덕’ 윤리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옳음(right)’에서 ‘좋은(good)’으로, ‘행위’에서 ‘행위자’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었다.<sup>24)</sup> 다시 말해 절대적 선(善)에 대한 규율적 사고[옳음]를 버리고,<sup>25)</sup> 시중(時中)에 맞는 ‘좋은’을 각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하와 같다.

현대 ‘덕’ 윤리는, 근대 윤리 철학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편적 옳음(right)은 무엇인가.’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더욱 좋은(good) 윤리적 판단은 무엇인가.’와 같은 윤리학적 질문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행위 중심의 철학에서 행위자 중심의 철학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 중심의 윤리는 ‘특정한 행위’를 의무 또는 법칙을 정하고 이를 실현했을 때 정의와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행위자’ 중심의 윤리는 특정한 행위에 중심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품성의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특수한 조건과 상

23) 장동익, 「새 규범 윤리학으로서의 ‘덕’ 윤리의 가능성」, 『철학』 제68집, 한국철학회, 2001, p.286 참조.; 행위 중심의 근대 윤리학은 행위의 동기부여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며 사고와 행동 간의 관계를 다루지 못한다. 허라금, 「현대 윤리학의 위기와 페미니즘」, 『여성학논집』 제14-1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8, p.52 참조.

24) 샌델은 존 롤스(Rawls, J., 1921~2002)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좋은’이 ‘옳음’보다 더욱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집 2호, 한국법철학회, 2014, pp.212.; 214-216 참조.

25)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집 2호, 한국법철학회, 2014, p.215 참조.

황에서 스스로 가장 좋음(good)을 취사하여 행하자는 것이다. 이때 성품은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는 인간의 내적 가능성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성품이 바로 ‘덕’이다.

이러한 ‘덕’ 윤리는 인간 내면 상태, 즉 덕에 기인한 다양한 윤리적 판단과 기준에 따라 행위하는 이론이다. 즉 ‘덕’ 윤리는 형이상학적 옳음에 대한 부분을 사람의 내적 성향, 즉 인간성으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sup>26)</sup> 기본적으로 ‘행위자’는 ‘행위’보다 더 근원적이다. ‘행위자’의 속성이 ‘행위’의 도덕적 속성보다 더 우선하며, 행위의 속성은 행위자의 속성을 빌려 정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가진 후덕함과 부덕함은 행위의 시비보다 더 근원적이다. 위의 말을 종합하자면 행위자의 내면의 성품에서 행위의 가치가 파생되는 것이다.

이에 ‘덕’ 윤리는 특정 상황에 따라 후덕자가 내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하는 특수주의(particularism)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상황에 따른 판단은 중용(中庸, ethike arete)을 기초로 실현되는데, 이에 ‘덕’ 윤리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분석한 이창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용의 상태는 산술적 중간이라기보다는 기하학적 중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시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중간 지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윤리적 의사결정은 고정적인 원칙 또는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특수한 조건에서 후덕자가 내리는 유연한 판단이다.<sup>28)</sup> 이러한 점은 ‘덕’ 윤리를 행위자 평가에 의한 ‘행위자

26) 장동익, 『덕 이론』, 씨아이알, 2019, p.42.

27) 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 외 2명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1, p.398.; 본 논문의 모든 원문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 외 2명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1를 참고하였다.

28) 노영란, 「응용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의 비판적 고찰」, 『철학』 제113

중심 윤리학'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이유이다. 즉, 행위자 평가란 윤리 규칙과 언어의 품성 그리고 그 기초를 추구하기보다는 윤리적 행위자의 인간성에 초점을 기울인 방식이다. 결국 '덕' 윤리는 후덕한 사람에게서 윤리적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론이다.<sup>29)</sup>

'덕' 윤리는 인간성이 행위에 우선한다는 '품성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다.<sup>30)</sup> 이는 특정 행위의 가치 근거가 후덕함에 근원하여 실천된다. 이에 '덕' 윤리는 도덕적 관점을 인간의 특정 행위에서 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덕한 사람을 통해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덕'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자' 중심의 윤리라는 것이다.

### Ⅲ. 서용 사상과 '덕' 윤리의 윤리적 방법론과 논리

위의 장에서 보이듯이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두 사상 모두 인간의 윤리적 가능태를 인간의 성품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행 또는 자기 수련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부분을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용은 현대 사회와 같은 시절에는 선수행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비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옛날의 선(禪)은 개인을 구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가 좁아져서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세계성을 띠므로 세계의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개인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선도 세계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31)</sup>

집, 한국철학회, 2012, pp.354-355 참조.

29) 장동익, 『덕 이론』, 씨아이알, 2019, p.42.

30) 장동익, 『덕 이론』, 씨아이알, 2019, p.16.

31) 조환기, 『참사람의 향기-서용상순 대종사 1주기 추모집』, 고불총림 백양

이처럼 서용은 현시대에의 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타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옳다고 보았다. 이에 이하에서는 서용이 말하는 선 공부와 그로 말미암는 윤리적 함의와 논리를 살펴보자.

이 참선공부를 바르게 하려면 화두를 간절히 참구해야 하는데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생명체가 지적인 의식을 초월해야 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의단(疑團)에 자기의 전(全) 존재가 통일되고 또 긴장되어서 마치 백 미터 달리기에서 ‘탕’하는 신호를 시작으로 달리는 순간처럼 몸과 마음이 한 생명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두를 참구하며 더욱 순일하게 정진하면 의식분별이 끊어진 은산철벽(銀山鐵壁)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화두가 분명하면서도 더욱 명백히 들어나며 의식의 기멸(起滅)이 없어져 버린다. 선을 깊이 수행하면 그런 경지가 실제로 있다. 그러나 의식의 기멸이 없어진 상태지만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소소여여(昭昭靈靈)하게 화두와 의단이 일체가 되어 무의식의 차원까지도 꿰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sup>32)</sup>

서용은 화두를 들어 모든 지해병(知解病)을 여의고 선정(禪定)에 들게 되면 의식이 일어나거나 혹은 사라지는 것도 없지만[起滅] 그 안에는 묘유한 밝음과 신령스러운 그 무엇이 있으니 이것은 불지(佛智)이며 아록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이며 반야지혜[般若智]인 것이다. 따라서 참선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지의 밝힘과 다름 아닌 것이다. 즉 정혜(定慧)는 본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3)</sup> 이처럼 불지가 밝혀진 이를 서용은 “참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근원적인

사, 2004, p.64.

32)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9.

33) 이에 육조 혜능 또한 정혜(定慧)를 본디 둘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六祖大師法寶壇經』(T.48, 0352c13), “善知識 定慧猶如何等 猶如燈光 有燈即光 無燈即闇 燈是光之體 光是燈之用 名雖有二 體本同一 此定慧法 亦復如是”



주체가 되어 모든 피동적인 자기 상실을 극복한 자유자재한 인간 본래의 참모습인 것이다”<sup>34</sup>)라고 하였다. 즉 성품을 회복한 이는 피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성품에 따라 인위가 없이 모든 시비와 선악을 능히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다.

‘덕’ 윤리에서 말하는 성품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덕’ 윤리에서 말하는 ‘덕’은 두 종류가 있다.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성적 덕’이며,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이성적 덕(철학적 지혜·실천적 지혜)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가르침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empeiria)<sup>35</sup>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1103a, 14-16)<sup>36</sup>)

‘덕’ 윤리에서 말하는 덕은 ‘품성적 덕’과 ‘이성적 덕’이 있다. 이성적 덕은 또 둘로 나누는데,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그것이다. 철학적 지혜는 지식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과는 크게 관련하지 않고,<sup>37</sup>)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절제와 관련함으로 도덕적 인간됨[爲人]에

34)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9.

35) 이와 같은 맥락과 같은 원문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 많고 나이 든 사람들 혹은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증명될 수 없는 말과 의견들을 증명 못지않게 경청해야만 한다. 그들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눈을 가지고 있어 올바르게 보기 때문이다.”(1143b, 11-13)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p.226.; “전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단적으로 좋은 판단자이다. 그런 까닭에 젊은이는 정치학에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다. 젊은이에게는 인생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정치학의 논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이는 자신의 감정에 따르기 쉬워서 강의를 들어 봐야 헛되고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1095a, 1-4)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p.16.

36)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p.398.

37) “그들과 같은 사람들(철학적 지혜가 있는 자)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모르고 지내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賢人]라고 부를 뿐, ‘실천적인 지혜를 가진 자’라고는 부르지는 않는다. 또 사람들은 그들이 비범하고 놀랄 만한 것들, 어렵고 신적인 것들을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혜이다.<sup>38)</sup>

‘덕’ 윤리에서 말하는 후덕자라고 하는 것은 중용(中庸, ethike arete)을 견지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중용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원문에서도 보이듯이 습관을 통해 완성된다. 이러한 습관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행이 ‘숙고’인데 이러한 숙고는 ‘실천적 지혜’에 기인하여 이루어진다.<sup>39)</sup> 이러한 실천적 지혜에 기인한 숙고를 통해 우리는 중용의 상태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의 과정에서 품성과 다른 습관이 체화될 수 없다.

품성적 덕들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1103a, 24-26)

어느 것이든 본성과 다르게는 습관을 들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에 위로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1103a, 20-25)

다시 말해 특정한 습관이 체화된다면 이는 자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곧바로 정의로운 품성, 절제 있는 품성, 용감한 품성, 또 그 밖의 것들에 있어서 [훌륭

---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적인 좋음은 아닌 까닭에 쓸모는 없다고 말한다.”(1141b, 5-8)

- 38) “반면에 실천적 지혜는 인간적인 좋음에 관계하며, 숙고가 가능한 것에 관계한다. 우리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기능, 즉 잘 숙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단적으로 잘 숙고하는 사람은 인간적 행위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들 중 최선의 것을 헤아림에 따라 적중시키는 사람이다.”(1141b, 9-14)
- 39) 잘 숙고한다는 것은 일단 ‘학문적 인식’은 아니다.(1142b, 1); 덕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이 중용은 이성에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1107a, 1-3)

한 품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144b, 5-6)”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훌륭한 성품을 본디 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품은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고 회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두 사상을 비교분석 할 수 있다. 먼저 서용의 참사람 사상을 서양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서용은 각각의 개인이 성품을 되찾고 깨달아 스스로 참사람이 됨으로써의 자비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참사람 결사문」과 「참사람 서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운동의 요는 병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스스로 내면에 대한 공부를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 본디 자성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를 밝혀 그에 따라 삶을 영위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에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의 언행은 특정 행위나 강령에 따른 언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 청정한 자신의 성품을 깨달음으로써의 자비행을 말한다. 즉 각 개인이 참사람이 됨으로써 각 개인이 인연에 따른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른 자비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각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는 ‘덕’ 윤리의 특징인 ‘행위자’ 중심의 윤리와도 유사성이 보인다. 왜냐하면 ‘덕’ 윤리에서 말하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 또한 인간성에서 윤리적 가능성을 찾고 있고, 이에 선악 시비에 대한 부분 또한 특정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맞는 좋음(good)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개인의 주체적인 도덕적 선택이며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사상의 공통점은 서용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성이 아닌 자성의 지혜에 의한 행위임으로 그 자비행을 행함에 있어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랑·분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위(無爲)로 지혜에 따라 행위 할 뿐이다. 이는 마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다만 ‘할 뿐’인 것이

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 부분 또한 현대 ‘덕’ 윤리와 합치하는 부분이다. 현대 ‘덕’ 윤리 또한 근대 합리주의적 이성주의를 비판하여 등장한 이론이니만큼 인간의 윤리적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이성으로써의 윤리적 선택과 판단을 지양(止揚)하고 성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서용 사상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함의는 현대 ‘덕’ 윤리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이론 모두 이러한 성품으로 말미암는 도덕적 행위가 자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필히 모든 이들이 자기 성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자기 수행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성품을 밝히기 위한 방법론과 수행을 통한 이타행의 논리를 비교 분석해보자.

서용이 말하는 수행의 목적은 무지 또는 무명(無明)을 타파하여 세상 만물의 실상 깨닫는 것이다. 이때 서용은 ‘무(無)자 화두를 들어 생사와 더불어 모든 세상의 시비와 선악의 대립과 모순을 타파하여 실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서용이 중요시 말하는 것은 실상을 깨닫게 되면 세상 만물에 ‘나’라고 할 것은 없으며 또한 세상 만물이 ‘나’아님이 없다는 것[自他不二]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즉 세상 만물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에 서용이 말하기를 “깨달은 마음자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누구든지 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허공과 같이 하나이다. 모든 사람과 자연 그리고 대우주가 모두 하나이다.”<sup>40)</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체자비와 자리이타행이 절로 행하여 진다고 서용은 말한다. 다시 말해 서용은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무명을 벗고 반야 지혜로써 실상을 여실히 본다면 자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실천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이에 서용은 현대 문명에 의해 빼앗겨 버린 우리의 시선을 외면에서 내면으로 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덕’ 윤리에서 말하는 성품의 회복은 습관에 의해 드러나는

40) 서용,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p.22.

것이고 그러한 습관의 과정에서 실천적 지혜에 기반을 둔 숙고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실천적 지혜는 경험을 통해 증진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덕’ 윤리에서 말하는 성품의 회복은 경험이라고 하는 외면에 기대어 있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서용의 성품의 깨달음은 오직 자신의 본디 공적인 내면을 지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용이 말하는 인간의 윤리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방법론은 내면에 대한 공부로 귀결된다. 하지만 ‘덕’ 윤리에서 내면을 주체적으로 탐구하기보다는 중용의 상태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용의 상태를 견지하기 위한 숙고의 과정이 실천적 지혜에 기대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실천적 지혜는 경험을 통해 증진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행의 대상이 오직 내적 성품에 있는 서용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 두 사상 모두 인간의 성품은 모든 윤리성을 내재하고, 이에 이를 되찾을 때 인간의 윤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시선만큼은 일치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용의 사상과 현대 ‘덕’ 윤리 모두에서 인간의 이성에 기댄 윤리성은 그 한계가 분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그에 따른 논리는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서용의 윤리 사상은 각 개인이 성품을 닦음으로 스스로 지혜를 밝히고, 이로 말미암아 만인 각자가 도덕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하는 ‘행위자’ 중심 윤리의 특징이 발견된다. 이는 현대 윤리학을 주도하고 있는 ‘덕’ 윤리의 이론과 합치하는 부분이였다. 다만 각 개인이 성품을 닦는 수행 또는 자기 수련의 과정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 IV. 맺음말

현대 ‘덕’ 윤리는 세계 대전 이후 근대의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에 대한 회의(懷疑)와 반성에서 촉발되었다. 즉 현대 ‘덕’ 윤리는 근대 윤리 철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윤리 철학이다. 서용 또한 현대 한국 사회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 문명[과학주의·이성주의]적 사고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철학이라는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사상 모두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의 윤리성을 비판한다. 또한 두 사상 모두 인간의 윤리성을 증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품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각 개인이 훌륭한 성품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도덕적 ‘ 좋음(good)’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을 말한 것이다. 즉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두 사상 모두 모든 인간은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스스로 좋음을 판단하고 행위해야 하는 것이 윤리적인 인간이자 이를 기반으로 윤리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행 또는 자기 수련의 과정은 서로 상이했다. 서용의 방법론인 참선은 자신의 모든 의식과 사고를 여의고 오직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본디 공적인 자성에 들어가 반야 지혜를 얻어 모든 세상 만물이 본디 하나임을 깨닫고 이에 한다는 생각 없이[無爲] 동체자비(同體慈悲)·자리아타(自利利他)가 행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덕’ 윤리에서 말하는 성품의 밝힘은 ‘습관’에 의해 체화(體化)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에 기반을 둔 ‘숙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실천적 지혜는 사회적 경험을 쌓음으로 인해 증진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용의 참선 수행의 목적은 자신의 본디 공적인 성품을 깨닫는 것이고 이에 즉하여 드러나는 지혜로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서용이 말하는

동체자비·자리이타 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었다. 반면 ‘덕’ 윤리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된 실천적 지혜를 기반으로 숙고하여 중용을 지켜 행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품을 확인하고 체화된다고 말한다. 두 사상의 기본적인 사상, 즉 인간의 윤리적 가능태를 인간의 성품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그 방법론과 논리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전류>

『六祖大師法寶壇經』, T48

### <단행본 및 논문류>

노영란, 「응용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의 비판적 고찰」, 『철학』 제113집, 한국철학회, 2012.

미산 외 4명,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운주사, 2015.

서 옹, 「대담」, 『시와세계』 제5집, 시와세계, 2004.

\_\_\_\_\_, 「대중법문」, 『시와세계』 제5집, 시와세계, 2004.

\_\_\_\_\_, 『사람』, 고요아침, 2003.

\_\_\_\_\_, 『선과 실존철학 참사람의 향기』, 백양사, 2004.

\_\_\_\_\_, 『임제록연의』, 임제선원, 1974.

\_\_\_\_\_, 『청산에 사는 즐거움』, 창, 2004.

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 외 2명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1.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집 2호, 한국법철학회, 2014.

오종만, 「결사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정혜결사와 참사람결사 비교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장동익, 「새 규범 윤리학으로서의 ‘덕’윤리의 가능성」, 『철학』 제68집, 한국철학회, 2001.

\_\_\_\_\_, 『덕 이론』, 씨아이알, 2019.

조환기, 『참사람의 향기-서옹상순 대종사 1주기 추모집』, 고불총림 백양사, 2004.

### <기타 자료>

「김누리 “나이·성별·진영 같같이..한국 갈등 세계 1위 됐다”」, 『노컷뉴스』, 2022.03.15.



## Abstract

### Seo-ong Seokho's Ethical Meaning of True Person - Through Comparison with 'Virtue' Ethics -

Kim, Jong-yong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Dept. of Seon Studies,  
Dongguk Univ.,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thical meaning of Seo-ong Seokho's thought by comparatively analyzing Seo-ong Seokho's [西翁石虎, 1912-2003] true man and the modern 'virtue' ethics.

The modern 'virtuous' ethic was triggered by self-reflection on modern rationalistic rationalism, and Seo-ong Seokho also criticized Western civilized [scientism-rationalism] ideas as philosophies that oppose each other and encourage conflict. As such, both ideas criticize the ethics of rationalistic rationalism. Also, both ideologies believed that the answer lies in human character in order to promote or restore human ethics. Their idea is that each individual will become a subject who can choose and judge moral good for himself by having a good character. In other words, it speaks of the 'actor'- centered ethics. Seen in this way, both ideologies believe that all human beings should judge and act on their own according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in which they are placed.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process of practice or self-cultivation was different. Seo-ong Seokho's methodology, meditation, is a hui[慧] that is revealed as soon as one enters into ding[定] by ignoring all of one's consciousness and thoughts and only contemplating

the topic, without realizing that all things in the world are one and doing it without thinking of doing it. It is said that ‘Tong-ti-ci-bei[同體慈悲]’ and ‘Zi-li-li-ta[自利利他]’ are practiced. However, the character revealed in the ‘virtue’ethics was embodied by ‘habit’. This habit is not made by simply repeating any action, but through ‘consideration’ based on ‘practical wisdom’, and this practical wisdom was enhanced by accumulating social experience. As such, the purpose of Seo-ong Seokho’s meditation practice is to realize one’s original public character, and to speak of the act of wisdom revealed in this. Therefore, in order to do ‘Tong-ti-ci-bei [同體慈悲]’ and ‘Zi-li-li-ta [自利利他]’ that Seo-ong Seokho said, it was necessary to acquire wisdom through good deeds. On the other hand, in the ‘virtuous’ethics, it is said that one’s character is confirmed and embodied in the process of making a habit of doing it by contemplating on the basis of practical wisdom acquired through various experiences. It can be seen that the basic ideas of the two ideas, that is, the ethical potential of human beings are the same in that they are searched for in human nature,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ir methodology and logic.

Therefore, Seo-ong Seokho’s ethical thought is characterized by an ‘actor’- centered ethics in which each individual reveals his/her own wisdom by cultivating his/her character, and through this, each individual becomes a subject of morality and judges and acts according to conditions. This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virtue’ethics, which is leading modern ethics. However, there was a part where each individual’s performance process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 Key words

Seo-ong seokho[西翁石虎], true person, Soen[禪], Buddhist Ethics, Virtue Ethics, Aristotle

논문투고일 : '22. 04. 27. 심사완료일 : '22. 05. 25. 게재확정일 : '22. 05. 25.